

나일론 66의 뒷 이야기

1939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나일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대미(對美)실크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비용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미감정이 더욱 악화됐다. 언론에서는 나일론이란 이름이 일본을 조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陳政一
〈고려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장의 한 강당에서는 제 8회 헤럴드 트리뷴 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연사 가운데는 당시 듀폰사의 부사장인 스타인박사도 있었다. 단상에 오른 스타인박사는 플라스틱이 새로운 재료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후 “저는 여러분께 아주 새로운 화학섬유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고 스타인박사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석탄, 물, 공기로부터 만든 첫 인조섬유인 나일론 섬유는 거미줄보다 더 가늘게 만들 수 있으며, 강철처럼 강하며, 지금까지의 어떤 섬유보다 탄성이 크고 아름다운 광택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철처럼 강한 이라는 말이 귀를 울리자 청중들은 큰 박수를 쳤다. 바

야호로 여자들의 다리를 그 비싼 실크에 못지 않은 우아함과 사용하기 편리한 나일론으로 멋지게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일론 스타킹판매 불티

“여성용 스타킹을 위해 개발한 최신 합성섬유를 섬유 66이라 명명할 계획입니다.” 이 섬유는 나일론(nylon)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었으며, 1940년 5월 15일 뉴욕에서 처음으로 나일론 스타킹을 판매하던 날, 몇시간만에 무려 5백만켈레가 판매된 것을 보면 당시의 나일론 스타킹에 대한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킴에 따라 이듬해 미국 여인들은 앞을 다투어 그렇게 즐겨 신던 나일론 스타킹을 벗어 나라에 바쳐야 했다. 바로 자국 군인들에게 필요한 낙하산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나일론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이 이름 때문에 일본과 미국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 한 토막 이야기가 있다. 나일론 스타킹이 미국에서 시판되기 전에는 주로 면과 실크로 스타킹을 만들었으며, 이 시절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실크제품이었다. 당시 일본이 미국

에 수출한 품목 중 65퍼센트 이상이 실크제품이었다. 스타인박사의 발표 다음날 필라델피아 레코드지는 ‘새로운 합성섬유가 일본의 독점을 막을 것이 예상된다. 일본은 미국의 스타킹 시장에서 연 7천만달러의 순익을 올린다’고 일본의 실크수출 공세를 못마땅하게 보도하고 있다. 나일론의 성공은 일본의 실크 수출에 타격을 주었고, 따라서 막대한 군수품 수입을 감당해야 했던 일본에게 심각한 위기를 주었다.

한편 Japan Times Weekly & Transpacific은 ‘nylon의 철자를 뒤집으면 nolyn이 되며 이는 일본어로 농림을 뜻하는 norin처럼 발음된다. nylon이라는 이름은 du Pont사장이 일본 농림성을 조소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라고 보도하였다. Japan Times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카펜더(당시 듀폰 사장)씨는 일본을 매우 미워해 온 장본인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실크 수출을 막으려 해 왔다. 나일론이라는 이름은 농림을 역으로 쓴 것에 그치지 않고 Now You Lousy Old Nipponese!의 첫 글자를 모아 지은 이름이다.’ 사실 나일론이라는 이름은 ‘섬유 66의 작명위원회’의 작품이며 신고 뛰어도 헤치지 않는다는 뜻을 함축하는 norun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해 nylon이라는 이름이 선택되었다. 나일론 66의 발명자 캐로더스박사는 종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첫 특허신청을 한지 15일 되는 1937년 4월 29일(41회 생일 2일 후) 새벽에 필라델피아 한 호텔에서 자살하였다. 우울한 천재 화학자가 남긴 나일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재료이나, 이같은 비극적인 얘기가 숨어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⑤D